

## 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 (四)

### 맑스主義者의 一顧를 要함

權九玄

적어도 私有財産制의 ××, 資本主義의 獲得 本能의 破滅 等を 中心思想으로 하는 所謂 共產主義의 看板을 내세운 볼세뵈기[볼세비키] 運動輩로서 結果的 功勞를 論하며 이것을 紀念키 爲하여 그의 氏名 等を 함부루 내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社會運動 自體에 對한 矛盾이며 無名赤衛 全員の 侮蔑이라?

이것은 分明히 露西亞 볼세뵈기의 認識 錯誤가 안이면 썬르조아[부르조아] 이데오로기-에 類緣한 反動觀念이다.....

一個人의 氏名에 過重한 價値를 付與하여 竹綿靑史에 登錄하며 紀念碑塔 等を 建設함과 如함은 썬르조아 既成觀念의 專門的 遊戲가 안이면 안이 된다. 이와 가튼 觀念을 超脫치 못한 社會運動者가 있다 하면 그의 骨底에는 반드시 小카이제루가 磨劍을 하고 잇을 것이다.

#### 四

『世界는 大人物의 紀念碑라』하면 아마 맑스를 崇拜하며 레-닌을 紀念하는 볼세뵈기도 怒함을 마지 안할 것이다. 그러나 事實에 잇서서 썬르조아 代辯者 『페리콜레쓰』는 世界는 大人物의 紀念碑라 하여 世界의 文化史的 價値를 幾個 著名한 人物의 功果에 돌여보내고 말앗스니, 露西亞 大革命의 功勳을 레-닌이나 트로츠키 幾個人에게 爵獻하는 볼세뵈기는 이에서 다를 것이 무엇이라?

筆者는 페리콜레쓰의 말과 正反對로 『世界는 世界 全員の 紀念碑라』하고 저 하노니 世界의 文化史는 그 時代 時代의 複數 人間의 集積한 努力의 記錄이 아니면 아니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眞正한 意味의 歷史라 名命할 것은 社會進化上 過程의 推移의 記錄인 階級鬭爭史와 各時代를 代表한 文化乃至 思想의 說明인 時代文化史가 잇을 뿐이니 卽 社會를 進化的 途程에 運

轉한 前者나 文化的 時代意識의 表現인 後者が 모다 複數 人間의 活動生態  
이요 그 記錄이니만치 世界는 依然히 世界 全員の 總出演 舞臺인 까닭이다.

일즉이 크로포트킨은 말하되 『社會××은 群集運動인 同時에 時間적으로  
超越한 累代 複數 人間의 蓄積한 心意의 爆發行動이라』 하였다.

이것은 分明이 過去의 모든 歷史를 個人的 例傳과 가티 編輯하여온 史家  
에 對한 一個 頂針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